

'혁신교육 어제와 오늘, 미래'

도교육청, 29일 전주교대서 혁신교육 성과 보고회 전북 교육 성과 평가·공유 미래교육 방향 모색

전북 혁신교육 10년의 성과를 돌아 보고 새로운 미래교육을 조망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전주교대 산학협력 단과 공동으로 오는 29일 오후 2시30분 전주교대 교육문화관(김서홍홀)에서 혁신교육 성과 연구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 보고회는 '전라북도 혁신교육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전북 혁신교육의 성과를 평가

및 공유하고 새로운 미래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행사는 3시간 동안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이동성 전주교대 교수, 강은숙 전주오송초 교감, 박승배 전주교대 교수, 나종민 김제금구초 교사, 박용웅 전북대 교수, 최준호 전주영성고 교사, 김천홍 전북교육정책 연구소 연구위원이 나와 전북 혁신교육의 성과와 전망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2부에서는 최영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오유미 정읍혁신학교학부 모연대 대표, 소현성 전주대 교수, 권해수 전주영성고 교사, 강재은 연세대학부생 등 5명이 패널로 참여해 전북 혁신교육에 대해 토의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은 지난 10여 년 동안 혁신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번 보고회는 지난 혁신교육의 성과를 냉철히 되돌아보면서 보다 내실 있고 지속가능한 학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키르기스스탄의 바트르베코브 알마즈베크 키르기스당 원내대표와 일라이모브 타메를란 대통령 지문위원장이 이끄는 '키르기스스탄 경제사절단'이 지난 25일 전주대를 방문했다. 이호인 전주대 총장과 키르기스스탄 경제사절단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 기업 유럽·CIS 지역 진출 위해

키르기스스탄 경제사절단 전주대 방문... 국제협력 모색

키르기스스탄의 바트르베코브 알마즈베크 키르기스당 원내대표와 일라이모브 타메를란 대통령 지문위원장이 이끄는 '키르기스스탄 경제사절단'이 지난 25일 전주대를 방문했다.

전주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주송)과 (사)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회장 이인호) 초청으로 방문한 '키르기스스탄 경제사절단'은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 동안 전주대를 비롯해 (사)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 농촌진흥청, 전주시청, 완주 용진농협, 새만금개발청 등을 방문한다고 전했다.

이번 키르기스스탄 경제사절단 방문은 지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6박 7일간 진행된 이낙연 국무총리와 키르기스스탄 총리가 함께 참석한 한-

키르기스스탄 비즈니스 포럼과 월드 옥타 경제인대회 무역상담회의 후속 조치로 전북 기업의 유럽과 독립국가 연합(CIS) 지역으로의 진출을 위해 진행됐다.

전주대 이호인 총장은 "키르기스스탄과 한국은 공통적으로 우랄알타이 어족으로서 민족 정서가 매우 유사한 인연이 있어 향후 전주대를 포함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간의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바트르베코브 알마즈베크 키르기스당 원내대표 등 방문단은 "키르기스스탄도 국토의 대부분이 산인데 한국도 그런 공통점이 있다"며 "인천공황의 선진화된 시설과 규모에 놀랐고, 한국과의 국제협력에 잘 이뤄지길 기대하

고 있다."고 말했다.

키르기스스탄 경제사절단의 전북 방문을 추진한 전주대 LINC+사업단장 주송 교수는 "지난 7월 비슈케크 방문을 통해 키르기스스탄과 전라북도가 매우 유사한 부분이 많음을 확인했고, 국제협력을 통해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지난 7월 비슈케크 방문 당시, 양 국가 간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을 위해 전주대에 초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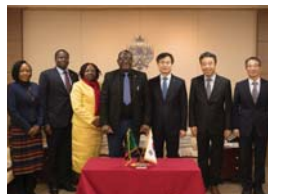
한편, 전주대학교에는 현재 4명의 키르기스스탄 교환학생이 재학중이며, 이번 교류를 통해 교육·어학뿐만 아니라 기업 및 한국의 선진 농업기술 등도 활발히 교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아프리카 농업인재 양성 확대

전북대, 주한 잠비아 대사과 학생교류 등 논의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은 26일 대학 본부 4층 총장실에서 월버 시무사 주한잠비아 대사를 접견, 아프리카 우수학생 인재 양성 프로그램 확대 등 전북대와 잠비아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월버 시무사 대사의 이번 전북대 방문은 그동안 전북대가 진행해온 아프리카 관련 사업을 통해 한국의 선진 농업기술을 잠비아에 전수할 수 있는 잠비아 우수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하고자 추진됐다.

전북대는 2017년부터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지원하는 아프리카 초청연수 사업을 수행하면서 우간다, 가나, 케냐 등 매년 아프리카 학생 20명을 5주간 집중적으로 동물생명과학 관련 분야에 대한 현장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북대 부설 국제농업개발

협력센터는 우간다와 산학연계형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며 최근 석사 13명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한국형 협동조합을 설립해 현지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동원 총장은 "전북대학교는 개교 이래 농업 분야를 선도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산학연 협력 시스템을 통해 농생명 관련 분야에서 많은 실적을 쌓아왔다"며 "이러한 연구 성과를 아프리카 등 여러 개발도상국에게 전수하며 상생 발전하는 것이 대학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고창군과 농생명 전문인력 양성 협력

고창캠퍼스 내 농생명과학과 3단계 운영 협약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와 고창군은 최근 고창군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농생명 분야 재직자 맞춤형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대가 2012년부터 고창캠퍼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민 대상 농생명과학과의 3단계 개설 및 운영을 위한 것이다.

전북대 농생명과학과는 전국에서 유일한 지자체 참여 농업계 계약학과로 지역 특화산업인 농생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고창군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고창군 농생명 산업 육성과 농생명 분야 전문인력 상호 활용, 농생명 분야 연구개발 및 교육에 관련된 장비 및 시설의 공동 이용에 협력하기로 했다.

향후 고창캠퍼스 내에 정규학과 개설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대와 고창군은 농생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재교육을 통해 고창군 근간 산업인 농생명 산업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창업지원단, 베트남서 판로개척 지원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권대규)은 최근 베트남 호치민에서 투자IR 발표 및 바이어 상담을 진행, 도내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와 제품 수출 판로를 개척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전북대 창업지원단,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19개 수출 기업이 참여했다.

19일 열린 투자 설명회에서는 현지 국영기업의 투자자들이 참여해 6개 전

북대 창업지원단 참여기업에 투자를 약속했다.

또한 20일~21일 이틀간 진행된 찾아가는 바이어 상담에서 11개 기업이 25개 기업을 방문해 이중 4개 기업이 275만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했으며, 1개 기업은 5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투자 상담회반 아니라 베트남 롯데마트, B&C 마트, 사이공 스캐어 등의 방문을 통해 현지 시장 조사도 진행했다.

/장은성 기자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